

『북한 형사소송법 주석』 통합판 발간

- 최근 개정법 조문 분석, 비교법적 연구 및 국제인권규범과의 합치성 검토 -

- 법무부는 2023년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(2021년 개정법)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『북한 형사소송법 주석(통합판)』을 발간했습니다(1,072쪽).
 - ※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(2012년 개정법) 438개 조문 중 증거·수사·예심·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하였음
-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, 대한민국·러시아·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습니다.
 - 아울러,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 「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(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, “자유권규약”)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습니다.*
 - *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,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없음
 - 집필에는 법학 교수·실무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, 전(前) 북한 검사인 북한이탈주민 등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기했습니다.
- 이로써 북한·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*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
 - * 부인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2021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삭제됨
-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“이번 발간을 비롯하여, 법무부는 당장 필요한 과제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 - ※ 통일법제 DB(www.unilaw.go.kr)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음

붙임 :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개정법의 주요 변화 소개

담당 부서	법무실 통일법무과	책임자	과 장	김태헌 (02-2110-3223)
		담당자	검 사	심재신 (02-2110-3255)



□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

- 북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수사-기소-재판 절차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, 대비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

- ▶ **수사와 기소 사이에 '예심' 절차가 별도로 존재**
 - 북한법상 '수사'는 대한민국의 내사, '예심'은 대한민국의 수사에 대응
- ▶ **'법관'에 의한 영장주의 부재**
 - 압수·수색 승인, 체포영장 발부, 구속 승인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있음
 - 구속적부심사제도 및 보석제도 부재
- ▶ **무죄추정의 원칙 부재**
- ▶ **피심자·피소자의 진술거부권 부정, 증인의 증언거부권 부정**
 - ※ 북한 형법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(제263조)
- ▶ **전문법칙 배제**
- ▶ **2심제 채택**
 - 다만, 중앙재판소가 필요에 따라 제1심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경우 상소 불가(단심)

□ 2021년 개정법의 주요 변화

- ▶ **피심자·피소자 권리보호 강화**
 - 부인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삭제
 - 혐의 부인권, 재판관계자 기피신청권 등 피소자 권리 명시
 - 예심단계에서의 공선(국선)변호인 선임권 신설
- ▶ **피심자·피소자 방어권 약화**
 - 예심원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등 피심자 의무 규정 신설
- ▶ **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**